

한국, 잉글랜드에 석패... 조 2위로 16강행

후반전 3분 루크먼에게 1골 허용해 0-1로 패배... 30일 천안서 포르투갈과 16강 격돌



한국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에서 잉글랜드에 첫 패를 당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대회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0-1로 졌다.

기니(3-0), 아르헨티나(2-1)를 잡으며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2승1패(승점 6)를 기록, 잉글랜드(2승1무·승점 7)에 조 2위 자리를 내줬다.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은 오는 30일 천안종합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포르투갈과 8강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인다.

비록 조 1위를 이루진 못했으나, 한국은 '죽음의 A조'에서 살아남으면서 1983년 멕시코대회에서 이뤘던 4강 이상의 성적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한국은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조영욱(고려대)-하승운(연세대)을 투입해 둔 3-5-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체력 소모가 많았던 이승우와 백승호(이상 FC 바르셀로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한국은 전반 1분 만에 임민혁(FC서울)의 슈트로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 8분에는 이유현(전남)이 무회전 프리킥으로 기회를 엿봤다.

잉글랜드는 신체 조건의 우위를 앞세워 차분히 맞섰다. 아데볼라 투크먼과 오비에 에자리아는 빠른 드리블에 이은 역습으로 한국의 빈틈을 노렸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경기는 전반 중반 들어 다시 달아올랐다. 전반 32분 한국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조영욱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공을 하승운이 오른쪽 발리슛으로 연결했다. 하



지난 26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A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잉글랜드의 경기, 대한민국 선수들이 잉글랜드 키어런 도웰이 골을 성공시키자 아쉬워하고 있다.

지만 하승운의 발을 떠난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크게 흔들렸다. 후반 3분 한 번의 패스에 수비 뒷공간이 뚫리면서 투크먼에게 단독 기회를 헌납했다.

다행히 각도를 좁히고 나온 골키퍼 송범근(고려대)의 선방으로 실점을 막았다.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됐다. 잉글랜드의 역습 속도를 미드필더들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몰렸다. 후반 7분에는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고 날린 투크먼의 슈트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쫓겨온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던 한국

은 후반 11분 선제골을 빼앗겼다. 2대1 패스에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키어런 도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도웰은 송범근의 위치를 확인한 뒤 침착한 왼발슛으로 한국의 골문을 열었다.

신태용 감독은 일격을 당하자 아꼈던 이승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진현(성균관대)도 한찬희(전남)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승우는 특유의 빠른 몸놀림으로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잉글랜드 수비진은 험사리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후반 27분 투크먼에게 다시 한 번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등 수비

조직을 가다듬는데 애를 먹었다.

한국은 후반 34분 백승호까지 넣으며 총 공세에 나섰다. 끊임없이 두드러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에서 정태욱(아주대)이 터닝슛을 날렸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한편, A조 또 다른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기니를 5-0으로 대파했다. 잉글랜드와 한국에 연패를 당한 아르헨티나가 이날 모처럼 화력을 폭발하면서 첫 승을 챙겼다.

아르헨티나는 1승 2패(승점 3)로 조 3위가 돼 와일드 카드로 16강행을 바라보게 됐다. /김민근 기자

순창군, 4개팀 전지 훈련·5개 스포츠 대회 유치

순창군이 때 이른 무더위로 날려버릴 스포츠 열기로 뜨겁다. 군은 오는 6월 국가대표 정구 선수단 전지 훈련을 비롯해 4개팀 전지 훈련과 5개 스포츠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먼저 순창을 찾는 전지훈련팀은 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다. 이들은 오는 6월 2일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입촌식을 갖고 7월 31일까지 강도 높은 훈련에 들어간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단 13명도 10월 31일까지 순창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한다. 또 8월에는 폼나무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테니스 선수 20명과 정구선수단 40명도 순창에서 전지훈련을 확정했다.

6월 스포츠대회도 풍성하다.

먼저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2017 한국주니어 정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이 열린다.

이어 3일부터 4일 까지는 제29회 한국장년연맹회장배 전국정구대회가 열린다. 또 전라북도교육감기 유도대회, 제3회 전국남녀공도대회, 제16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등도 6월 순창을 뜨겁게 달굴 스포츠 대회다.

군 측은 스포츠 대회는 기본적으로 대회기간 동안 지역에서 선수단과 가족들이 머물고 또 전지훈련팀도 장기간 지역에서 머물며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식당, 숙박업소 같은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호날두 4년간 188억 탈세 혐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이어 이번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영국 BBC는 26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스페인에서 탈세 가능성에 직면했다. 스페인 검찰이 호날두 탈세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호날두는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1500만 유로(약 188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호날두의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언론이 호날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호날두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약 5개월 만에 또 한번 탈세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BBC는 "호날두 이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세 무리뉴 감독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무리뉴 감독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시는 지난 25일 스페인 대법원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지난 2013년 탈세 혐의로 스페인 세무당국에 고발됐다. 당시 스페인 언론은 두 사람이 2007년부터 3년 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420만 유로(약 53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징역 21개월과 벌금 370만 유로(약 47억원)를 선고 받은 메시는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기에 메시의 라이벌인 호날두마저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서 두 선수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민근 기자



KPGA 이태희, '33번째 생일' 맞아 단독 선두 도약

카이도 드림오픈 2R서 6언더파 66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2017 카이도 드림오픈에 출전한 이태희(33·OK저축은행)가 둘째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태희는 지난 26일 장수군 장수골프리조트 사과, 나무코스(파72·7050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찍어낸 이태희는 공동 2위 그룹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태희는 2006년 KPGA 투어에 데뷔해 2015년 벅스 헤리티지를 통해 첫 승을 맞

봤다. 그해 연말에는 데뷔 10년 만에 KPGA 대상을 수상하며 대기만성형 골퍼로 발돋움했다. 이태희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2승째를 노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태희의 33번째 생일이었다.

이태희는 생일을 자축하려는 듯 무섭게 타수를 줄였다.

10번홀에서 라운드를 시작한 이태희는 별다른 고비없이 순항을 이어갔다. 1번홀에서는 3타이클까지 뽐냈다. 8번홀 더블 보기는 아쉬운 대목. 이날 스코어는 버디 6개, 이글 1개, 더블보기 1개다.

이태희는 "감기 기운이 있어 컨디션이

안팎한 편은 아니지만 쇼트게임이나 퍼팅 등 전체적인 샷감이 좋다"면서 "8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이 몇 차례 짧아 더블보기를 한 것이 아쉽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는 "100야드 내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있다. 좋아하는 거리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공략할 것이다.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현(26·바이네르)과 이종민(31·동아오츠카)은 이태희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박장호(21)가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